

미용실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2020. 11. 29

연구원 오상엽

I. 미용실의 탄생과 성장

II. 미용실의 현황 및 특성

III. 코로나19로 인한 헤어미용업의 영향

IV. 헤어미용업의 트렌드 및 시장 진단

[Executive Summary]

미용실의 탄생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실(美容室)은 파마, 커트, 화장, 그 밖의 미용술을 실시하여 용모, 두발, 외모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장소 ■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미용업은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어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으로 주로 이발소로 영업
미용실의 현황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실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1만개 사업장이 영업중으로 최근 10년간 미용실 수는 약 28% 증가 ■ 인구대비 미용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인구 1만명 당 약 26개의 미용실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인구 1만명 당 21.3개가 있음 ■ 최근 5년간 폐업한 미용실의 평균 영업 기간은 8.2년이었으며 10년 이상 영업한 미용실의 비중이 31%로 영업 기간이 긴 업종임을 확인
코로나19로 인한 헤어미용업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올해 미용실의 창업·폐업 모두 감소함 ■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감 및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미용실의 매출도 함께 변동
헤어미용업의 트렌드 및 시장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 헤어디자이너들이 공중파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하여 머리를 자르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머리를 세팅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며 인기를 얻음 ■ 전체 미용실 중 67%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반면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미용실이 증가하는 추세 ■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 지도 및 인적·물적 지원과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우수 인력 확보 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및 성장할 전망

1. 미용실의 탄생과 성장

- 미용실(美容室)은 파마, 커트, 화장, 그 밖의 미용술을 실시하여 용모, 두발, 외모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장소
 -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이용업은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어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으로 주로 이발소로 영업
 - 1970~1980년대 까지는 미장원(美粧院)으로 불리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머리카락 손질 및 화장 등을 주로 제공했으며, 이후 미용실로 바뀌면서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하게 됨
 - 2000년대에는 블루클럽, 나이스가이 등 남성을 위한 미용실이 나왔으며, 이후에도 프리미엄 미용실, 바버샵 등 다양한 형태의 미용실로 발전
 - 미용실의 개업을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증이 필수이며,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대학, 고등학교에서 미용관련학과의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미용실 중 가장 오래된 미용실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수진미용실’로 1900년부터 120년 이상 영업중

[그림 1] 이발소 회전간판



출처: 네이버 블로그 'DM 스튜디오'

[그림 2] 면목동 소재 수진미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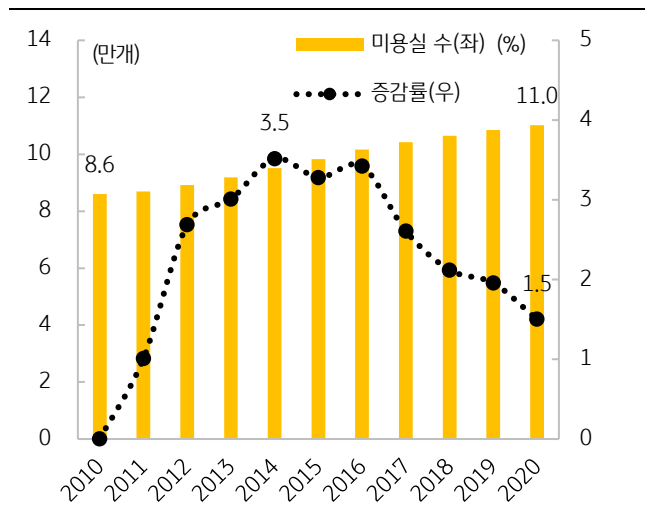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지도 거리뷰

2. 미용실¹의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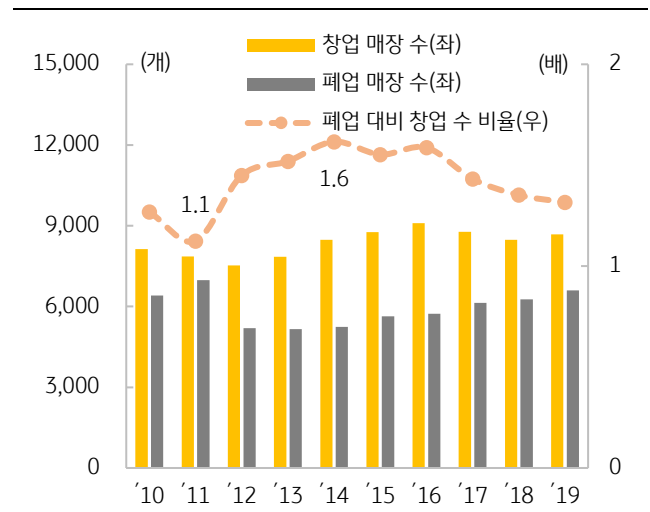
- 미용실²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1만개 사업장이 영업중으로 최근 10년간 미용실 수는 약 28% 증가
 - 미용실은 2010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 전년대비 3.5% 증가한 뒤 증가하는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 신설된 미용실 수는 2003년에 약 1.9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폐업점 수 또한 1.6만개로 가장 많아 2003년은 미용실의 창업과 폐업이 동시에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
 - 최근 10년간 창업이 폐업보다 많았던 해는 2014년으로 약 1.6배 많았으며, 가장 적은 해는 2011년으로 1.1배를 기록했으며, 10년간 평균적으로는 1.4배 많았음

[그림 3] 미용실 수 및 증감률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그림 4] 미용실 창·폐업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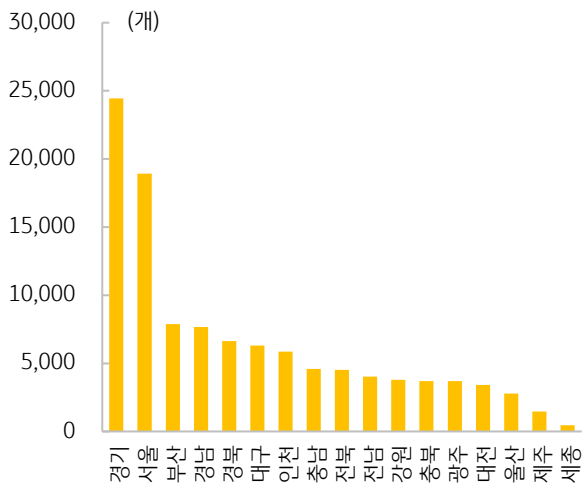
- 미용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서울 순이며,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 광주 순
 - 경기도에 약 2만4천개, 서울에 약 1만9천개의 미용실이 영업중으로 가장 많으며, 세종시에 약 450개, 제주도에 약 1천4백개로 가장 적음

¹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시스템(www.localdata.kr)에서 제공하는 2020년 10월 기준 미용업, 이용업 중 일반미용업, 일반이용업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²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미용업과 일반이용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의 명칭을 미용실로 통일함

- 인구대비 미용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1만명당 약 26개의 미용실이 있으며, 반대로 세종시는 1만명당 약 13.2개로 가장 적음

[그림 5] 지역별 미용실 수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표 1] 지역별 인구대비 미용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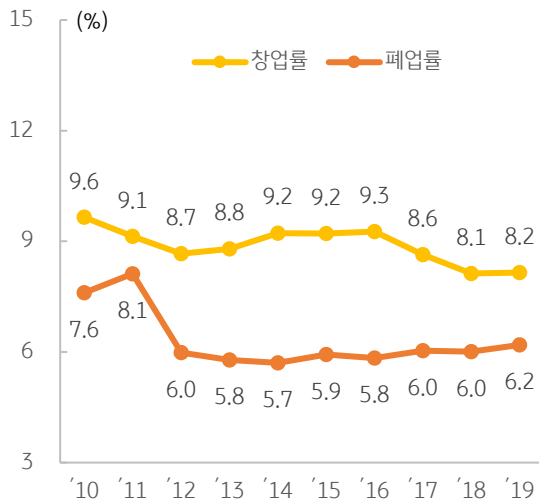
지역	미용실 수	1만명당 개수	지역	미용실 수	1만명당 개수
대구	6,313	26.0	경남	7,673	22.9
광주	3,694	25.4	제주	1,476	21.9
경북	6,639	25.1	전남	4,022	21.7
전북	4,527	25.1	충남	4,589	21.6
강원	3,798	24.7	인천	5,850	19.9
울산	2,786	24.4	서울	18,912	19.5
대전	3,418	23.3	경기	24,453	18.3
부산	7,874	23.2	세종	457	13.2
충북	3,698	23.1	전체	110,179	21.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 미용실의 창·폐업률은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창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반면 폐업률은 소폭 증가세를 보임

- 미용실의 창업률은 최근 5년간 9.2%에서 8.2%로 약 1.0%p 감소한 반면, 폐업률은 5.9%에서 6.2%로 0.3%p 증가하며 폐업이 창업보다 조금씩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용업은 타 업종 대비 낮은 창업률(8.2%)을 나타내고 있으며, 타업종 대비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으로 동 업종내 경쟁이 심각하여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주 원인
 - 미국의 경우 인구 1만명당 2개의 미용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1.3개로 10배 이상 많음
 - 기존에는 미용 서비스 경험을 쌓은 뒤 본인의 사업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발전으로 창업 대신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하려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음
- 타 업종 대비 폐업률이 낮은 편이며 인건비와 재료비 등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폐업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

[그림 6] 미용실 연도별 창·폐업률



주: 창업(폐업)률=당해 창업(폐업)매장수÷전년 매장수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표 2] 타 업종 비교

업종	'18 매장 수	'19 창업 매장 수	'19 폐업 매장 수	창업률 (%)	폐업률 (%)
PC방	20,896	3,437	3,282	16.4	15.7
커피숍	54,830	14,508	7,912	26.5	14.4
제과업	18,729	2,470	2,433	13.2	13.0
헬스장	9,269	1,109	707	12.0	7.6
미용실	106,468	8,678	6,593	8.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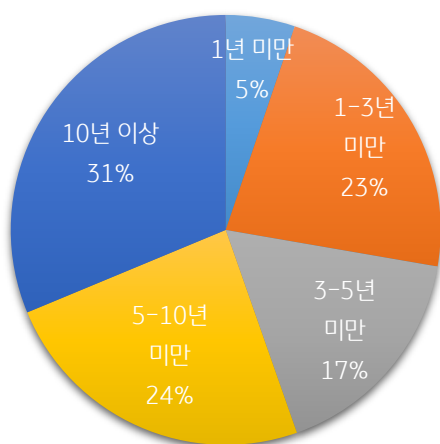
주: 창업(폐업)률=당해 창업(폐업)매장수÷전년 매장수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 미용실의 평균 영업 기간은 8.2년으로 영업 기간이 긴 편인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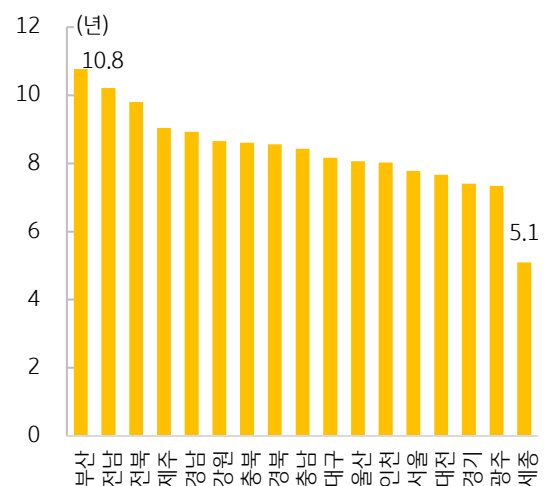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폐업한 미용실의 평균 영업 기간은 8.2년이며 전체 매장의 55%가 5년 이상 영업을 했으며, 10년 이상 영업한 곳의 비중이 31%로 영업 기간이 긴 업종임을 확인
- 지역별로는 부산이 평균 10.8년으로 가장 길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길었으며, 세종시와 광주를 타 지역 대비 짧은 영업기간을 나타냄

[그림 7] 영업 기간별 매장 수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그림 8] 지역별 평균 영업 기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3. 코로나 19로 인한 헤어미용업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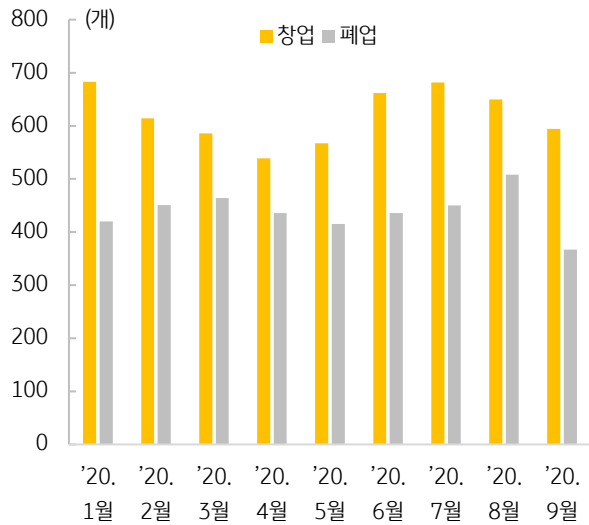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용실의 창업·폐업은 작년대비 감소

-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창업한 미용실은 6,610개였으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창업한 미용실은 전년대비 15.6% 감소한 5,577개를 기록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용실의 창업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
- 반면 미용실 폐업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4,809개의 미용실이 폐업을 했고,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3,947개의 미용실이 폐업하여 창업과 폐업 모두 작년 대비 감소함
 - 타 업종 대비 적은 고정비 지출로 코로나19가 폐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
 -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미용실의 폐업 수가 증가할 리스크도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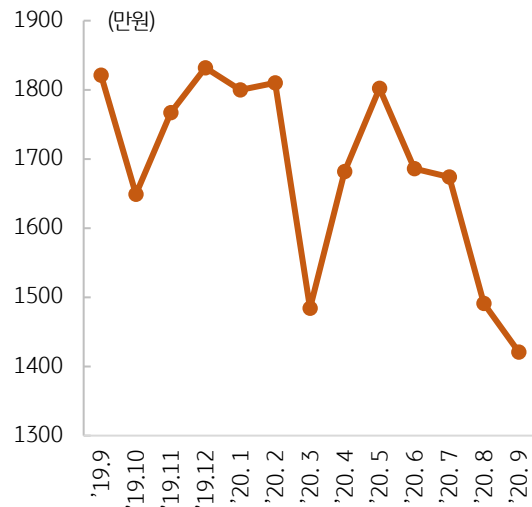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감 및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미용실 매출이 변동

- 많은 미용실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최근 1년간 월별 매출 현황을 보면 1차 대 유행이 시작한 3월의 매출이 급락했으며, 이후 확진자 수의 감소와 함께 매출도 회복함
- 5월 이태원 발 확진자 수가 증가한 이후 매출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며 2차 대유행의 시작인 8월부터 더욱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미용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헤어 미용의 경우 특정 직군을 제외하고는 생활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한두 달 늦게 머리를 손질하더라도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시 미용실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미용실은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확진자의 감소 또는 코로나 종식 이후 매출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

[그림 9] 2020년 미용실 월별 창·폐업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그림 10] 인계동 소재 미용실 월별 평균 매출 현황³

자료: KB부동산 리브온 상권정보 분석 시스템

4. 헤어미용업의 트렌드 및 시장 진단

■ 유명 헤어디자이너들이 공중파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하여 머리를 자르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머리를 세팅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며 인기를 얻음

- 차홍 아르더의 대표 차홍은 과거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 MBC 프로그램 <마이 리틀텔레비전> 등에 출연하여 스스로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알려줌
 - 스스로 앞머리 자르기, 머리 예쁘게 묶는 방법 등 헤어스타일을 쉽고 예쁘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미용계의 백종원으로 불림
 - 유튜브 채널 '차홍 CHAHONG'을 개설하여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 계절별 두피 관리 방법 등의 영상을 제공하며 약 2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
- 구독자 수 약 6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금강연화'의 헤어디자이너 금강연화는 주로 남자 고객을 대상으로 머리를 자르고 스타일링 하는 영상을 제공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느끼게 함
 - 일명 '망한 머리'를 살리는 과정, 머리 숏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객의 머리를 풍성하게 보이게끔 세팅하는 과정의 영상을 공개하며 많은 시청자에게 인기를 얻음

³ 미용실 매출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이며, 해당 수치가 전국 미용실의 대표성이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헤어 스타일링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에게 고데기 사용법, 헤어 왁스 바르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주로 남자 시청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제공

[그림 11] 셀프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주는 차홍



자료: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그림 12] 인기 미용 채널 '금강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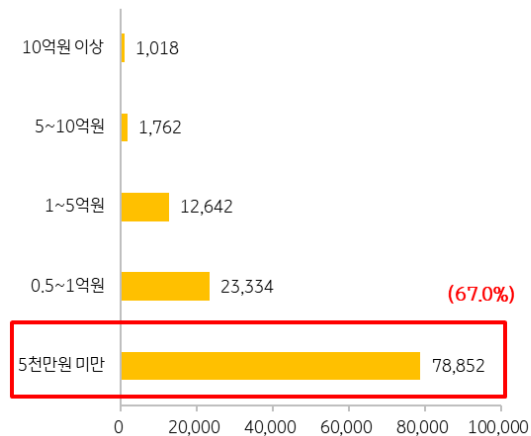
역대급 탈모, 19살이 이렇게 심할수있다고?! 🔥 100% 실제...

자료: Youtube

■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미용실이 약 67%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8년 서비스업조사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미용실은 78,852개로 전체 미용실 중 67.0%를 차지함
- 반면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미용실은 2,780개로 전체 미용실 중 2.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6년 1.6%, 2017년 1.9% 등 과거 대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3] 연간 매출액 별 매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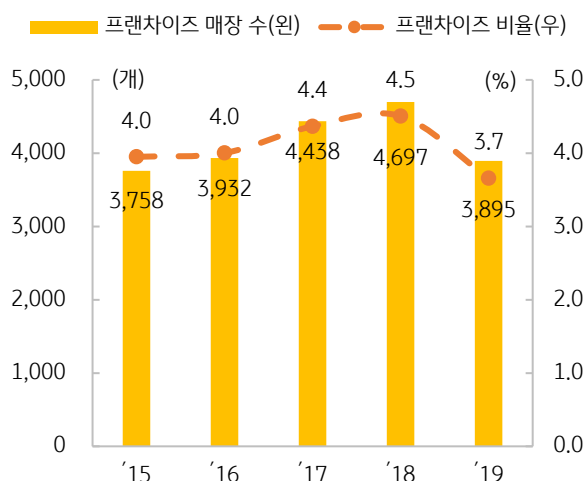


자료: 2018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 지도 및 인적·물적 지원과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우수 인력 확보 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및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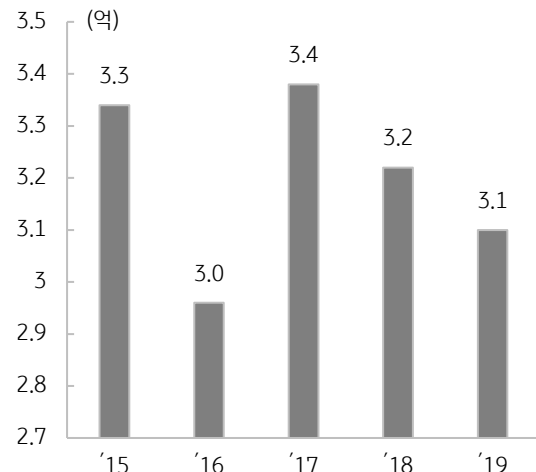
-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한 고객 유인이 가능하며 본사의 지속적인 경영 지도 및 지원으로 체계적인 성장이 가능함
- 프랜차이즈 본부의 자체 아카데미를 통한 미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브랜드 공동 마케팅 및 최신 트렌드 공유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함
- 반면 로열티 및 보증금 등으로 인한 높은 창업 비용과 불평등 계약 가능성, 독자적 자율경영의 어려움 등이 존재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19년 기준 3,895개로 전체 미용실의 약 3.7%를 차지하며, 연 평균 매출은 3.1억원을 기록

[그림 12] 프랜차이즈 매장 수 및 비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그림 13] 프랜차이즈 가맹점 연 평균 매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연구원 오상엽 (osy1220@kbfg.com, 2073-5783)

